

백색란 소비확대, 소비자 홍보에 달려 있다.

- 홍보부 -



일 시 : 1998년 4월 9일,
오후3시

장 소 : 본회 회의실

참석자 : 구천석(본회 채란분과
위원장) 김기석(수의
과학연구소 계역과장)
김석규(동부축산 영업
부장) 김우호(양지부화
장 부사장)

이두룡(춘천양계 사장)

사 회 : 김용화(본지 편집장)

정 리 : 김종준(본지 기자)

본고는 채란농가의 사육 규모 확대에 질병 발생이 급증하는 악영향이 초래되어 매년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왔는데 가금티푸스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다. 현재 백신까지 개발하여 공급되고 있으나 질병의 특수성 때문에 채란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백색산란계가 가금티푸스에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채란농가가 사육을 전환하려고 있으나 계란 유통이 갈색란 위주로 되어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가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백색 산란계 사육확대 방안을 모색코자 개최한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백색계 사육, 가금티푸스 피해 농장 위주 미미

▲ 사회 : 금융위기로 인하여 양계업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육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가격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질병까지 급증하여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금티푸스는 위험수위를 넘어 채란업의 뿌리까지 뒤흔들어 놓을 만큼 심각하여,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백색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김부사장님께서 백색산란종계 사육 현황에 대해 근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우호 : 우리나라 현 백색종계의 보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통계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적은 물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지부화장 6천수와 복지부화장에 1만 2천수의 종계가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백색계는 주문입란으로 병아리를 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실용계 판매수수 또한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용계 농장에서는 경제성 면에서 백색계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소비자가 갈색란을 무조건 선호하여 백색계로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백색계를 사육하는 농장은 우선 소비가 가능한 공업용이나, 할란용 그리고 군납용으로 백색란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백색계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백색란이 갈색란과 영양가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사육에서도 사료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산



△ 김우호 부사장 : 우리와 같은 부화장들은 백색란 공급이 증가한다는 확신이 서면 종계를 바로 수입하여 백색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와 소비자를 설득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백색란의 소비량을 늘려 나가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부화장들은 백색란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확신이 서면 종계를 바로 수입하여 백색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사회 : 백색종계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실용계 생산을 하여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백색산란실용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구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구천석 : 백색계 사육분포를 보면 시설이 오래되고 소규모 집단 사육지역 중 가금티푸스 질병으로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서 백색계로 전환하였고 여기에서 생산된 계란은 할란 공장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수 지역에서 납품용으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 이두룡 사장 : 백색계의 장점은 가금티푸스와 추백리에 강하고, 사료섭취량이 적어서 전량 백색계로 교체할 경우 연간 544억원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육하고 있고, 극소수지만 백신제조용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소계군을 사육하고 있기도 하나, 춘천양계와 같이 1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도 있어 전국적으로 볼 때 총 사육 규모는 25만수를 조금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회 : 백색산란계를 농가에서 사육하려면 갈색계 보다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백색란 유통 기반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먼저 직접 백색산란계를 대규모로 사육하시는 이사장님께서 백색계 사육시 유리한점과 애로를 겪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나서 차례로 장·단점을 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 이두룡 : 잘 아시다시피 백색계의 장점은 가금티푸스와 추백리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권장할 부분이라면 백색계가 갈색계보다 체구가 작고 사료섭취량이 갈색계 보다 8%

절감(전량 백색계로 교체할 경우 연간 544억)할 수 있고, 산란지수가 높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육하다 보니 제 농장의 경우에는 카니발리즘이 심하게 나타나 2회에 걸쳐 디비킹을 할 정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난각이 얇아 실중량이 많고, 여름철에는 손만 닿아도 손자국이 남아 지저분하게 보여서 세척하는데 신경을 써야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김우호 : 백색종계가 산란율, 수정율, 부화율, 초생추 생산에서 갈색계에 비하여 생산 원가가 저렴합니다.

백색실용계는 갈색실용계 보다 산란후기 수명이 약 5주 길고 난중이 노계군일 경우 62~63g으로 고르고 파란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환우해도 산란율이 좋습니다.

사육에서 장점이 많아 실용계 입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란판매가 가장 어렵고 노계출하시 가격이 싸다는 점과 사료섭취량이 적어 사료품질에 문제가 있을시 폐사율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구천석 : 백색계는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란 벨트로 인한 오염도가 심하고 무엇보다 케이지의 녹이 계란에 묻어 나오면 녹자국이 눈에 잘 띄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때론 계분이 묻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위생감각이 뛰어난 현대인에게 이런점 때문에 홍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룡 사장님 농장에서 카니발리즘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제 농장에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디비킹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양관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 : 지금까지의 두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백색란이 색깔의 특수성 때문에 조그마한 오염에도 금방 눈에 띄는데 과거에 비하여 소비자 위생수준이 높아져 오염된 계란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데 백색란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백색란 청결 유지가 관건

△ 이두룡 : 백색란을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위생적이고 청결한 계란을 공급하려는 의지는 차이가 없지만 방법상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계란세척을 규제화하고 있지만 유럽은 반대로 난막 훼손을 막기 위하여 세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들은 백색란의 청결유지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찾아야 합니다.

△ 김우호 : 우리나라가 3~4년전에는 세척 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계란을 공급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세척에서 포장까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계란을 세척할 수 없다는 법적인 제재도 없기 때문에 앞서 지적된 계란 청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으

리라 봅니다.

▲ 사회 : 세계적으로 전량 갈색계나 백색계에 치우쳐 사육하는 농가만 있는 나라는 극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갈색계로 전부 바뀌어지는 양태로 바뀐 보기 드문 예라고 보여지는데 가금티푸스와 관련하여 다시 백색계의 사육비율을 늘려가자는 의견이 업계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이미 많은 세미나를 통하여 백색계의 경제성과 가금티푸스의 항병력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지만 사육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연구를 하셨던 김과장님께 가금티푸스의 발생현황을 종합적으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기석 : 과거에는 임상증상만으로 판단하여 추백리를 가금티푸스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옛날부터 가금티푸스가 만연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92년 김포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병하면서 '93년에서 '95년까지 주로 여름철에만 산발적으로 발병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기존에 발병하던 가금티푸스는 한 품종에 국한하여 발병하였던 것이 다른 품종으로 확대되었고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여 갈색산란계 농장 어느 곳에서나 발병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창계사가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한 계군의 수수가 많아짐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철과 여름철 발생량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기석 과장 : '96년부터 가금티푸스 발생은 품종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여 갈색산란계 농장 어느곳에서 발병하여 매년 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금티푸스균은 35℃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7~9월에 발병율이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전파는 주로 분변을 통하여 하게 되는데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질병전파속도가 겨울철에 비하여 빠릅니다.

매년 가금티푸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에 따라 가금티푸스 백신을 개발하였지만 백신으로 100% 면역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병하고 있는 가금티푸스는 강독형으로 재감염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발병하기 전에 미리 투약해야 하는데, 질병 발병 후에는 백신을 하여도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만 발병의 주원인이 오염된 계사이기 때문에 항생제 약효가 떨어지면 재감염 확률이 높아집니다.

▲ 사회 : 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가금티푸스로 인해 갈색산란계 사육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가금티푸스 퇴치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하신 결과 백색계가 가금티푸스에 항병력이 뛰어나다고 발표하셨는데 백색계가 어느 정도 가금티푸스에 항병력이 있는지 예를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김기석 : 백색계와 갈색계의 가금티푸스에 관한 내병성 시험을 3년에 걸쳐 하다가 '97년에 로만 백색계 250수, 갈색계 250수를 2주령, 4주령, 7주령으로 나누어 시험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환경하에서 갈색계와 백색계가 동거하도록 하고 가금티푸스균을 먹이는 시험과 주사로 투여하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가금티푸스균 접종 후 2주간 동태를 살핀 결과 2주령된 시험계중 갈색계는 83~87%, 백색계는 4.4%, 4주령째는 갈색계 81~91%, 백색계는 0%, 7주령째는 갈색계는 57~71%, 백색계는 0%의 폐사율을 보여 백색계는 4주령 때부터 가금티푸스에 의한 피해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백색산란계는 가금티푸스 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에도 항병력이 큼니다.

제가 이는 바에 의하면 닭 내부에 균은 보유하고 있지만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균이 있다해도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소멸되는 등 항병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 사회 : 연구하신 입장에서 가금티푸스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계란을 유통하다 보면 가금티푸스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인데 요즘의 농장 실정은 어떻습니까?

가금티푸스 발병을 높아지나 관심은 낮아져

△ 김석규 : '9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가금티푸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아직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를 듣질 못했습니다. 아마 관심이 질병 보다는 사료가격이나 사료품질 등에 곤두세워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많을 것 같습니다.

△ 이두룡 : 제가 보더라도 '97년 가을 이후 가금티푸스로 인한 피해 농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통 피해가 있다는 소문조차 없습니다. 아마 같은 연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구천석 : 요즘 사양가들의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는 갈색계 5~6만수를 사육하는 농가가 계속되는 가금티푸스 피해를 입어 처음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처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다가 피해가 계속되자 아예 새로운 땅에 신계사를 짓고 입추하였는데도 가금티푸스가 발병하자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가금티푸스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고 해야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는 방법 밖에 없고 이제는 가금티푸스에 대한 반응 속도조차 느려지고 있어 피해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 김우호 : 가금티푸스 발생은 점점 증가하



△ 구천석 위원장 : 소비자가 갈색란을 선호한다고 하여 갈색란만 유통시키다보니 지금은 소비자들이 백색란을 오리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소비자 인식이 거의 없어서...

고 있는데 농장에서는 소문이 날까봐 쉬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형 농장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과거에 가금티푸스가 발병했던 농장은 계속 발병하고 있으므로 질병 발병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농장주가 질병 발생 사실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질병 현황은 고사하고 어느 정도인가 하는 추이 파악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백색란에 대한 소비자 인식 거의 없어

▲ 사회 : 종계로 볼 때 '80년 중반까지도 백색계와 갈색계의 수준이 비슷했는데 '90년 대초부터 백색계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야 어찌든 백색란의 소비가 감소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기로 백색란의 소비가 갑자기 줄어 들었고, 백색란이 갈색란 보다 인지도가 떨어진 배경을

구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구천석 : 소비자가 갈색란을 영양란이라 인식하면서 소비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유통 상인도 백색란의 난각이 얇아 유통 중에 파란이 생기고, 소비자가 큰 알을 선호한다는 이유를 들어 갈색란을 많이 유통시켰기 때문에 갈색란의 소비가 해마다 증가하여 지금은 소비자들이 백색란을 오리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백색란 유통비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 사회 : 가금티푸스에 의한 피해만 없었다면 백색계 사육에 대한 필요성이 이렇까지 부각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통을 바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가금티푸스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색계를 사육해야 할 만큼 절박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백색계가 가금티푸스 및 기타 질병에 강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사양가가 알면서도 백색계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계란 출하가 결국 사양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백색란 유통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김부장님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하면서 소비처 다변화 해야

△ 김석규 : 동부축산에서는 백색란을 1일 6,000개 정도 유통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청결한 특·대란은 20개씩 포장하여 150개를 3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세척하여도 오염 자국이 남아 있



△ 김석규 부장 : TV, 매스컴에서 백색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소비자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거나 대란 이하인 100판 정도는 상인에게 시세보다 1~2원 낮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 유통량이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수 수요기에 일시적으로 소비가 몰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가령 부활절이나, TV 등 매스컴에서 백색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백색란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식만 되면 소비는 상당수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호 : 백색란 유통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갈색란은 토종란이다, 재래종이다 라는 소비자의 통념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어 갈색란을 백색란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특란이라고 하더라도 백색란의 크기가 갈색란보다 적게 보이기(착시현상) 때문에 큰 알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에 부합되

지 못해 백색란 유통이 더 난조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 이두룡 : 저의 경우는 처음에는 군납에 역점을 두어 계란 소비를 도모했지만 기대했던 양보다 적어서 차선책으로 냉면집 같은 식당을 중심으로 판매처를 다변화 시켰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계란은 익혀서 쓰기에 굳이 갈색란과 백색란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었고 백색란과 갈색란이 영양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자 소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택배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남, 송파, 분당 등 25,000가구에 백색란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갈색란과 백색란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갈색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색란은 선진국 일본, 미국 등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고 신선도 및 청결도를 설명해 주면서 한 가정씩 설득 작업을 한 끝에 백색란 주문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단체급식, 유통업체인 할인매장과 백화점에 홍보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구천석 : 소비자가 갈색란을 토종란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김우호 부사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정에 소비되는 계란이 주부들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갈색란에 기울어져 있어 백색란 판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백색란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부들에게 백색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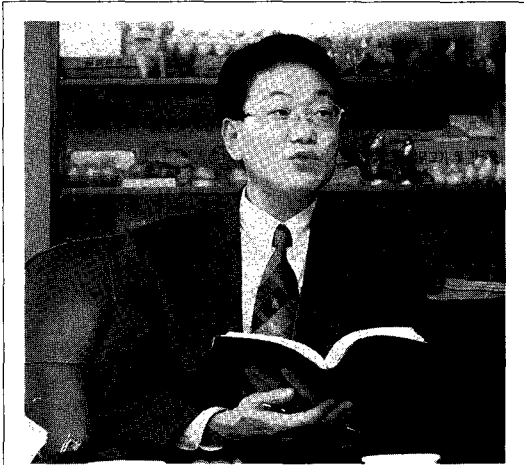
란판매시에 백색란의 장점을 설명해주고 더불어 TV, 라디오 등을 통한 선전도 동반하면 지금과 같이 백색란 판매에 어려움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 사회 : 백색계는 가금티푸스 피해 농장 또는 영세한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과연 이런 농가에서 세척 또는 포장 기계까지 갖추어서 계란 유통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계란이 이미지를 실추시켜 오히려 소비위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란집하장과 같은 G.P센터에서 계란을 세척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비를 총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앞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구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상인과 협조체계 구축이 급선무

△ 구천석 : 백색란이 시중에 잘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통상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상인이 농장에서 계란을 수집하여 소상인에게 판매할 때 백색란에 대한 우수성을 전달 해준다면 소비처에서도 이같은 인식이 100% 전달은 안되더라도 기존 인식 보다는 제고되리라 봅니다. 어차피 계란 수요자는 공급자의 판매 마케팅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가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하여 상인연합회가 백색



△ 김용화 부장 : 보다 공격적으로 소비자나 유통업자를 설득시키는 작업이 계속된다면 백색란 소비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란 유통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란집하장과 난 가공공장의 협조체제를 갖추어 난 가공공장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등외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 김석규 : 백색계가 질병에 강하고 사료절감 효과가 있고 계란은 갈색란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므로 위생이나 방역에 용이한 백색계 사육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후원하고, 양계협회에서는 대형 계란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내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란을 판매하도록 협조를 구하여 백색란이 유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다음 백색계 사육을 하고 싶어도 계란유통의 애로상 사육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백색계 사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구천석 : 백색란을 판매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저의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백색란이 없어서 홍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이 갈색란과 차별화하여 판매하다 보니 호기심이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백색란의 소비를 도모하고 있는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저희 농장 생산량 보다 많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도 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안된다고 앉아서 단정을 하니깐 더욱 어려움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석규 :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백색종계 입식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백색란 유통회사들은 기존 입식된 백색계에서 생산될 물량 만큼만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오다 보니 그나마 계란시장에 백색란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파는 백색계로의 사육전환에 걸림돌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유통회사에서 백색란 구입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적극 공세를 펴면 유통이 큰 폭으로 증가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가능성도 많습니다.

△ 김기석 : 질병대책으로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백색계 보급을 장려해 보려고 많은 방법을 찾아 보았으나 결론은 유통을 어떻게 바꾸느냐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시책 건의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산자들이 백색계 사육을 적극 모색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선정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 : 백색란 소비 증가를 위해서는 사양가, 유통업자, 소비자, 정부 등이 공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색란 소비가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할 경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출의 길도 모색할 수 있는데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기석 :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 계란을 홍콩을 거쳐 중국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식란으로 유통되는 기간을 4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백색란을 생산하여 일본, 홍콩 등 동남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위생인데 수출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수출 적격 농장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김우호 : 백색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계란 소비홍보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백색란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또한 공급 물량이 많으면 외국으로 수출 할 길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95년 7,693톤, '96년에 819톤의 계란을 수입하였는데 그 중 72%가 미국산, 25%가 중국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두룡 :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발상은

저도 여러 해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장조사를 해 보았더니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김부사장님의 말씀대로 현재의 환율로 보면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을 소비하는 패턴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계란소비 형태를 보면 우리는 익혀 먹는 습관인데 반해 일본인들은 아침에 생계란을 깨뜨려 먹는 습관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신선하고 청결한 농장 직속 계란을 주로 아침에 소비하고 오후 5시가 되면 계란은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식란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7일이고 7일이 경과한 계란은 가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계란은 식란으로서는 경쟁력이 이미 상실당한 상태이고 가공란으로 수출길을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 : 백색계 사육확대가 가금티푸스 대책의 일환으로 부각 되었지만 소비자들이 백색란을 선호하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계 업계의 시각이었지만 좌담회를 통하여 점검해 본 결과 생산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비잠재력은 매우 밝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아서 계란을 판다는 생각으로는 안되고 보다 공격적으로 소비자나 유통업자를 설득시키는 작업이 계속된다면 백색란 소비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오늘의 좌담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다섯분께 감사드립니다. 양계